

초등학생의 음주예방 보건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

문 정 순 · 양 수 · 박 호 란 · 이 은 숙(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목 차

I. 서론	V. 논의
II. 문헌고찰	VI. 결론
III. 연구대상 및 방법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약물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습관성과 의존성이 있어 중독되기가 쉬우며, 어린 나이인 경우 폐해가 더욱 심각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커지는데, 이는 어릴수록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물질 중에서 사용 경험과 빈도가 가장 높은 술은 우리 나라에서는 식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술이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다. 청소년들의 술 소비량의 경우 남학생들은 꾸준한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3). 알코올은 중추신경억제제로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이나 마취효과를 내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알코올을 경험할수록 여러 가지 질병발생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위험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단가출, 폭력행위, 절도, 기물 파손 등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또한 어린

나이에 알코올을 경험할수록 나이가 들어 과음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결국에는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인생의 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김경빈, 1991), 어린 시절에 물질에 중독 됨으로 삶에 대한 목표를 상실하여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음주를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며, 나아가 약물로 인해 손상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예방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약물예방교육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문화체육부, 1993).

초등학교 시기는 일생동안 실천할 건강습관이 마련되고, 건강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한번 숙지된 건강지식은 나이가 들어도 수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보건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들의 견해를 통하여 바람직한 음주예방 보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기초로 학생들의 음주예방 보건교육의 방향 제시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파악한다.
2.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주예방교육의 교육시작시기, 교육시간, 수업방식, 교육내용, 교육매체, 교육담당자 등에 대한 견해를 파악한다.
3. 초등학교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바람직한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1999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18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60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529부(88.2%)를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교육을 받은 자료 수집원들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연수회에 참석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연수원에서 쉬는 시간을 통하여 각 반에서 허락을 받아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를 배포하여 다음 쉬는 시간에 수거하여 225부를 회수하였으며, 서울시내 19개의 초등학교에서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서 방과후에 각 교실로 방문, 취지를 설명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304부를 수거하였다.

〈표 1〉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연령(세)	21-29	123	23.2
	30-39	167	31.4
	40-49	184	34.7
	50-65	57	10.7
	계	531	100.0
성 별	남	83	15.6
	여	449	84.4
	계	532	100.0
종 교	천주교	89	16.9
	기독교	193	36.7
	불교	42	8.0
	없음	202	38.4
	계	526	100.0
결혼상태	기혼	436	82.1
	미혼	95	17.9
	계	531	100.0
교육경력(년)	5 이하	112	21.3
	6-15	148	28.0
	16-25	173	32.9
	26 이상	94	17.8
	계	527	100.0
질병유무	없다	335	63.3
	있다	194	36.7
	계	529	100.0

무응답 제외

3. 연구도구

연구팀이 문헌을 참고하여 자료수집도구를 개발한 후 초등학교 교사 8인과 교육학 교수, 예방의학교수 각 1인의 자문을 받아 질문지를 수정하여 교사 5인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주행태,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견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 분석방법

SA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음주행태,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의견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견해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교사들의 연령은 40-49세가 34.7%로 가장 많았고, 다음 30-39세가 31.4%로서, 평균 38.2세 ±9.18였다(표 1).

성별은 여자가 84.4%, 남자 15.6%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36.7%, 천주교 16.9%, 불교 8.0%의 순이었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82.1%, 미혼이 17.9%였다.

교사들의 교육경력은 16-25년이 32.9%로 가장 많았고, 6-15년이 28.0%, 5년 이하가 21.3%, 26년 이상이 17.8%였다.

교사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자가 63.3%인 반면,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6.7%였다.

2. 대상 교사들의 음주 행태

교사들은 모임이나 회식 시에만 술을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58.2%였으며, 전혀 안 마시는 대상자는 30.4%로 나타났고, 즐겨 마시는 경우는 11.4%였다(표 2).

〈표 2〉 교사들의 음주행태

음주행태	실 수	백분율
전혀 안함	154	30.4
모임, 회식시	295	58.2
즐거 마심	58	11.4
계	507	100.0

무응답 제외

3. 대상 교사들의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견해

1) 초등학생들을 위한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를 보면(표 3),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4.6%였으며, 필요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15.4%였다.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는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위해서가 2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의 나쁜 점에 대한 이해 및 지식전달이 18.7%, 건강에 해롭다가 18.4%, 음주 학생이 많고 시작 연령이 어리다가 17.1%, 음주 예방을 위해서가 15.2%. 기타로 가정에서 교육이 없고 음주로 인한 비행이 증가한다가 각각 2.9%와 1.0%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67.6%였으며, 기타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다와 술은 음식이기 때문이라

〈표 3〉 음주예방 교육의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있다		438	84.6
필요한 이유	음주의 나쁜 점에 대한 이해 및 지식전달	59	18.7
	음주학생이 많고 시작 연령층이 어리짐	54	17.1
	예방차원	48	15.2
	건강에 해로움	58	18.4
	건전한 가치관, 태도, 습관형성	84	26.7
	가정에서의 교육부재	9	2.9
	비행증가	3	1.0
	계		315
없다		80	15.4
필요하지 않은 이유	나이가 어리다	25	67.6
	술은 음식(문화적 이유)	5	13.5
	호기심 자극	1	2.7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다	6	16.5
계		37	100.0
계		518	100.0

무응답 제외

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16.5%와 13.5%였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 교사들의 음주예방교육 방향에 대한 견해

음주예방교육	구 분	실 수	백분율	
교육시작시기	3학년	53	11.0	
	4-5학년	136	28.3	
	6학년	168	35.0	
	중학교	110	22.9	
	기타	13	2.7	
	계	480	100.0	
교육시간	일반수업	91	17.9	
	특활	146	28.8	
	체육	208	41.0	
	기타	62	12.2	
	계	477	100.0	
수업방법	토론	234	47.7	
	일반수업	52	10.6	
	실험	174	35.4	
	기타	31	6.3	
	계	491	100.0	
교육내용	성장발달장애	201	39.6	
	음주의 습관성	26	5.1	
	질병유발	159	31.3	
	조기사망	36	7.1	
	타인에게 해로움	53	10.4	
	학교성적저하	33	6.5	
	계	510	100.0	
	교육매체	만화	109	21.5
		컴퓨터게임	98	19.5
비디오		284	56.0	
교과서		13	2.6	
기타		3	0.6	
계		507	100.0	
담당교사	담임	96	18.8	
	양호교사	326	63.7	
	체육교사	20	3.9	
	학부모	34	6.6	
	유명인사, 전문강사	36	7.0	
	계	512	100.0	

무응답 제외

2) 음주예방교육 시작시기

음주예방교육의 시작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4-5학년이 28.3%, 중학교가 22.9%, 초등학교 3학년이 11.0%였다(표 4).

3) 음주예방교육 시간

음주예방교육으로 적합한 시간은 체육시간이 좋겠다고 응답한 교사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특별시간이 28.8%, 일반수업시간이 17.9%였다(표 4).

4) 음주예방교육 수업방식

음주예방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방식은 토론식이 47.7%, 실험 35.4%, 일반수업이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5) 음주예방교육 내용

음주예방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성장발달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3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질병유발로 31.3%, 타인에게 해를 준다 10.4%, 조기 사망한다고 7.1%, 학교 성적이 저하된다고 6.5%, 음주가 습관화 된다고 5.1%의 순이었다(표 4).

6) 음주예방교육 매체

음주예방교육을 위한 매체로는 비디오가 가장 좋다고 응답한 교사가 56.0%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만화 21.5%, 컴퓨터 게임 19.5%, 교과서가 2.6%의 순이었다(표 4).

7) 음주예방교육 담당교사

음주예방 담당교사로는 양호교사가 적격자라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담임교사 18.8%, 전문강사나 유명인사가 7.0%, 학부모가 6.6%의 분포를 나타냈다(표 4).

4.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 예방 교육에 대한 견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본 결과, 연령별로는 20대가 8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30대로 85.1%, 40대가 83.7%, 50대 이상이 76.2%로서 젊은 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성별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여부는 남 교사의 82.7%, 여 교사의 84.9%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두 집단간에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 유무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여부는 종교가 있는 교사의 87.2%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종교가 없는 교사는 80.3%로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5).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84.6%, 미혼자의 84.2%가 음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질병 유무에 따라서는 질병이 있는 군의 84.6%, 없는 군의 84.7%가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 행태에 따라서는 전혀 안 마시는 군의 81.9%, 모임 회식 시에만 마시는 군의 86.5%, 즐겨 마시는 군의 80.4%가 음주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세 군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연령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방향

교사들의 연령과 교육 경력에 따라 음주예방교육의 방향에 어떤 차이가 있나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 경력과는 거의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r=0.94740$, $p=0.0001$), 연령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였다(표 6).

음주예방교육의 시작시기는 6학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0대 교사의 36.1%, 30대 교사의 33.1%, 40대 교사의 35.9%, 50대 교사의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와 30대의 교사는 4-5학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각각 32.0%와 32.5%인 반면 40대와 50대의 교사는 중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각각 25.9%와 26.8%였다. 그 다음으로는 20대와 30대의 교사는 중학교 때로 각각 21.3%와 20.1%인 반면 40대와 50대의 교사는 4-5학년 때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필요성

일반적 특성	구 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계	χ^2	p
		실수(%)	실수(%)			
연령	20대	118(87.4)	17(12.6)	135(100.0)	3.218	0.359
	30대	143(85.1)	25(14.9)	168(100.0)		
	40대	144(83.7)	28(16.3)	172(100.0)		
	50대	32(76.2)	10(23.8)	42(100.0)		
	계	437(84.5)	80(15.5)	517(100.0)		
성별	남	67(82.7)	14(17.3)	81(100.0)	0.249	0.618
	여	371(84.9)	66(15.1)	437(100.0)		
	계	438(84.6)	80(15.4)	518(100.0)		
종교	있음	279(87.2)	41(12.81)	320(100.0)	4.439	0.035
	없음	159(80.3)	39(19.70)	198(100.0)		
	계	438(84.6)	80(15.44)	518(100.0)		
결혼상태	기혼	357(84.6)	65(15.4)	422(100.0)	0.009	0.925
	미혼	80(84.2)	15(15.8)	95(100.0)		
	계	437(84.5)	80(15.5)	517(100.0)		
질병	있다	159(84.6)	29(15.4)	188(100.0)	0.002	0.967
	없다	277(84.7)	50(15.3)	327(100.0)		
	계	436(84.7)	79(15.3)	515(100.0)		
음주행태	전혀안함	122(81.9)	27(18.1)	149(100.0)	2.412	0.299
	모임, 회식시만	268(86.5)	42(13.5)	310(100.0)		
	즐거마심	45(80.4)	11(19.6)	56(100.0)		
	계	435(84.5)	80(15.5)	515(100.0)		

무응답 제외

가 각각 22.8%와 22.0%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0대 교사의 9.0%, 30대 교사의 13.0%, 40대의 10.5%, 50대의 12.2%로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음주 예방교육 시작시기에 대한 의견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음주예방교육 시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20대, 30대 및 40대의 교사는 체육시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각각 40.7%, 45.7% 및 3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특활시간으로 각각 27.6%, 26.5% 및 27.0%였으며 일반 수업시간이 18.7%, 19.2% 및 20.1%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50대의 교사는 특활시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체육 시간으로 27.9%, 일반 수업시간이 14.0%의 순으로서 타 연령군과 다소 상이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음주예방교육 수업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20대, 30대, 40대 및 50대의 전 연령층의 교사가 토론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각각 50.4%, 44.5%, 45.2% 및 6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실험 방식으로 각각 31.2%, 39.4%, 36.9% 및 29.5%였으며, 일반 수업이 각각 14.4%, 9.0%, 10.2% 및 6.8%로서 가장 적었다. 연령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수업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음주예방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20대의 43.8%, 30대의 39.2%, 40대의 36.6%, 50대의 39.5%의 교사가 성장장애에 대한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20대의 25.8%, 30대의 34.9%, 40대의 31.4%, 50대의 32.6% 교사가 응답하였다. 성적 저하, 타인에게 피해, 조기 사망, 습관성을 가진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질 것이란 의견은 소수였으며, 연령대별로 율과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 음주예방교육 매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20대, 30대, 40대 및 50대의 전 연령층의 교사가 비디오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각각 42.3%, 57.2%, 59.6% 및 7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대의 교사는 컴퓨터 게임으로 27.7%가 응답한 반면에 나머지 30대, 40대 및 50대의 교사는 만화로 각각

23.0%, 18.6% 및 13.6%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20대의 교사는 만화 26.1%, 교과서가 3.8%의 순으로, 30대, 40대 및 50대 교사는 컴퓨터 게임이 각각 18.6%, 17.0% 및 4.6%, 교과서가 각각 1.2%, 4.7% 및 2.2%의 순으로서 연령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매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연령별 음주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20대의 62.8%, 30대의 63.7%, 40대의 65.4%, 50대의 61.4% 교사가 양호교사가 가장 적격자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담임 교사로, 20대의 17.8%, 30대의 20.0%, 40대의 17.9%, 50대의 18.2%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체육교사, 학부모, 기타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소수였으며, 연령대별로 율과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교사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방향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시작시기는 6학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기혼교사의 34.7%, 미혼교사의 35.8%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5학년으로 기혼교사의 27.1%, 미혼교사의 34.6%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로 기혼교사의 23.4%, 미혼교사의 21.0%가 응답하였고, 기혼교사의 12.1%, 미혼교사의 6.2%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에 음주예방교육 시작시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시간은 40.9%의 기혼교사와 37.8%의 미혼교사가 체육시간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특활 시간으로 각각 28.4%와 23.2%였으며, 일반 수업시간이 각각 18.3%와 22.0%로서 두 집단간에 음주예방교육 시간에 대한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수업방법은 기혼교사의 46.9%, 미혼교사의 50.6%가 토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다음이 실험방식으로 36.1%의 기혼교사와 32.9%의 미혼교사가 응답하였으며, 10.1%의 기혼교사와 12.9%의 미혼교사가 일반 수업방법이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에 음주예방교육 수업방법에 대한

〈표 6〉 연령별 음주예방교육 방향

연령		20대 실수(%)	30대 실수(%)	40대 실수(%)	50대 실수(%)	계	χ^2	p
음주예방교육	3학년	11(9.0)	20(13.0)	17(10.5)	5(12.2)	63(0.1)	11.34	0.500
	4,5학년	39(32.0)	50(32.5)	37(22.8)	9(22.0)	135(27.6)		
	6학년	44(36.1)	51(33.1)	58(35.9)	15(36.6)	168(36.8)		
	중학교	26(21.3)	31(20.1)	42(25.9)	11(26.8)	110(22.5)		
	기타	2(1.6)	2(1.3)	8(4.9)	1(2.4)	13(2.7)		
	계	122(24.9)	154(31.5)	162(33.1)	41(8.4)	489(100.0)		
교육시간	일반수업	23(18.7)	29(19.2)	32(20.1)	6(14.0)	90(18.9)	11.62	0.236
	특활	34(27.6)	40(26.5)	43(27.0)	14(32.6)	131(27.5)		
	체육	50(40.7)	69(45.7)	61(38.4)	12(27.9)	192(40.3)		
	기타	16(13.0)	13(8.6)	23(14.5)	11(25.6)	63(13.2)		
	계	123(25.8)	151(31.7)	159(33.4)	43(9.0)	476(100.0)		
수업방법	토론	63(50.4)	69(44.5)	72(45.2)	26(62.1)	230(47.1)	13.70	0.321
	일반수업	18(14.4)	14(9.0)	17(10.2)	3(6.8)	52(10.7)		
	실현	39(31.2)	61(39.4)	62(36.9)	13(29.5)	175(35.8)		
	기타	5(4.0)	11(7.1)	13(7.7)	2(4.6)	31(6.4)		
	계	125(25.6)	155(31.8)	164(33.6)	44(9.0)	488(100.0)		
교육내용	성장장애	56(43.8)	65(39.2)	63(36.6)	17(39.5)	201(39.5)	17.20	0.510
	습관성	6(4.7)	9(5.4)	9(5.2)	2(4.7)	26(0.4)		
	질병유발	33(25.8)	58(34.9)	54(31.4)	14(32.6)	159(31.2)		
	조기사망	8(6.3)	12(7.2)	15(8.7)	2(4.7)	37(7.3)		
	타인에 피해	12(9.4)	12(7.2)	22(12.8)	8(18.6)	54(10.6)		
	성적저하	13(10.2)	10(6.0)	9(5.2)	0(0.00)	32(6.3)		
	계	128(25.2)	166(32.6)	172(33.8)	43(8.4)	509(100.0)		
교육매체	만화	34(26.1)	37(23.0)	32(18.6)	6(13.6)	109(21.5)	36.07	0.001
	컴퓨터 게임	36(27.7)	30(18.6)	29(17.0)	2(4.6)	97(19.2)		
	비디오	55(42.3)	92(57.2)	102(59.7)	35(79.6)	284(56.1)		
	교과서	5(3.9)	2(1.2)	8(4.7)	1(2.2)	16(3.2)		
	계	130(25.7)	161(31.8)	171(33.8)	44(8.7)	506(100.0)		
교육담당	담임	23(17.8)	33(20.0)	31(17.9)	8(18.2)	95(18.59)	13.87	0.309
	양호교사	81(62.8)	105(63.7)	113(65.4)	27(61.4)	326(64.59)		
	체육교사	1(0.8)	6(3.6)	12(6.9)	1(2.2)	20(3.91)		
	학부모	11(8.5)	10(6.0)	8(4.6)	5(11.4)	34(6.65)		
	기타	13(10.1)	11(6.7)	9(5.2)	3(6.8)	36(7.05)		
	계	129(25.3)	165(31.1)	173(33.9)	44(8.6)	511(100.0)		

무응답 제외

〈표 7〉 결혼상태별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방향

음주예방교육	구 분	기 혼	미 혼	계	χ^2	p
시작시기	3학년	48(12.1)	5(6.2)	53(11.1)	3.630	0.458
	4-5학년	108(27.1)	28(34.6)	136(28.4)		
	6학년	138(34.7)	29(35.8)	167(34.9)		
	중학교	93(23.4)	17(21.0)	110(23.0)		
	기타	11(2.7)	2(2.5)	13(2.7)		
	계	398(83.1)	81(16.9)	479(100.0)		
교육시간	일반수업	72(18.3)	18(22.0)	90(18.9)	2.426	0.489
	특활	112(28.4)	19(23.2)	131(27.5)		
	체육	161(40.9)	31(37.8)	192(40.4)		
	기타	49(12.4)	14(17.0)	63(13.2)		
	계	394(82.8)	82(17.2)	476(100.0)		
수업방법	토론	191(46.9)	43(50.6)	234(47.5)	5.615	0.230
	일반수업	41(10.1)	11(12.9)	52(10.6)		
	실험	147(36.1)	28(32.9)	175(35.6)		
	기타	28(6.9)	3(3.5)	31(6.3)		
	계	407(82.7)	85(17.3)	492(100.0)		
교육내용	성장장애	160(38.1)	41(46.1)	201(39.5)	3.639	0.725
	습관성	21(5.0)	5(5.6)	26(5.1)		
	질병유발	137(32.6)	22(24.7)	159(31.2)		
	조기사망	32(7.6)	5(5.6)	37(7.3)		
	타인에 피해	44(10.5)	9(10.1)	53(10.4)		
	성적저하	26(6.2)	7(7.9)	33(6.5)		
	계	420(82.5)	89(17.5)	509(100.0)		
교육매체	만화	86(20.8)	23(25.0)	109(21.5)	9.237	0.055
	컴퓨터 게임	72(17.4)	26(28.3)	98(19.4)		
	비디오	242(58.4)	41(44.5)	283(55.9)		
	교과서	14(3.4)	2(2.2)	16(3.2)		
	계	414(81.8)	92(18.2)	506(100)		
교육담당	담임	80(19.0)	16(17.8)	96(18.8)	12.97	0.011
	양호교사	274(65.1)	51(56.7)	325(63.6)		
	체육교사	19(4.5)	1(1.1)	20(3.9)		
	학부모	22(5.2)	12(13.3)	34(6.7)		
	기타	26(6.8)	10(11.1)	36(7.0)		
	계	421(82.4)	90(17.6)	511(100.0)		

무응답 제외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기혼교사의 38.1%, 미혼교사의 46.1%가 성장장애에 대한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혼교사의 32.6%, 미혼교사의 24.7%가 응답하였다. 성적 저하, 타인에게 피해, 조기 사망, 습관성을 가진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질 것이란 의견은 소수였으며, 연령대별로 비율과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결혼상태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매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기혼교사 58.4%가 비디오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만화로 20.8%, 컴퓨터 게임이 17.4%, 교과서가 3.4%의 순인 반면, 미혼교사도 44.5%가 비디오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는 컴퓨터 게임으로 28.3%, 만화가 25.0%, 교과서가 2.2%의 순으로서,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 예방 교육 매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5$).

결혼상태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기혼교사의 65.1%, 미혼 교사의 56.7%가 양호교사가 가장 적격자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담임 교사로, 19.0%의 기혼교사와 17.8%의 미혼교사가 응답하였다. 체육교사, 학부모, 기타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소수였으며, 결혼 상태에 따라 비율과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간에 음주예방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1$)

IV. 논 의

청소년들의 물질남용은 전 세계를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같은 집단에 속하기 위해, 수줍음이나 자신감의 결핍을 숨기기 위해 또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물질을 남용하게 된다. 처음에는 음주나 흡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점차 더 강한 것을 남용하게 된다(홍성도와 김승태, 1996).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997년부터 알코

올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18세로 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1993년에 한국 청소년학회에서 실시한 최근 30일 이내의 약물사용경험조사에서 중학생의 음주사용은 11.8%, 고등학생은 40.6%였고, 1995년에 실시한 김정아 등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음주경험이 78.7%로 나타났다. 1998년에 윤혜미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중학생의 43.4%, 인문계 고등학생의 72.4%, 실업계 고등학생의 84.4%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 예방협회(1998)에서 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5%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데 이 중 중학생은 57.3%, 고등학생은 85%로 나타났다.

한편, 최초 음주시기는 고등학교 입학전이 67%로 가장 많고 특히 15.4%에 이르는 학생이 12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음주의 저연령화 경향을 보여준다. 이기찬(1997)의 연구결과 음주를 시작한 때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답한 대상자가 32.6%로 나타났고, 문화체육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6.6%의 학생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는 이미 초등학생들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1-12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영국의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98.5%가 이미 음주를 경험했고 처음 알코올을 접한 나이도 남자는 8.6세, 여자는 9.2세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Black, 1994; HEA, 1997). 따라서 이미 이동기에 음주를 경험하는 경우 중학교에서의 음주 예방교육은 늦는다는 생각이 인정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수준에서 알코올 교육이 소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다(Haydock, 1998).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84.6%가 초등학생들의 음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시작시기도 6학년이 35.0%, 4,5학년이 28.3%였으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음주학생이 많고 시작연령이 어려지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17.1%였다. 반면에 초등학생들의 음주교육은 필요 없다고 한 사람도 15.4%가 있었고 그 중 67.6%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22.9%가 중학교 때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시대적

심각성과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음주예방교육 실시 시간은 교사의 41%가 체육시간이 좋다고 하였으나 체육교사를 교육담당자로 생각한 사람은 3.9%정도에 불과하였고, 교육담당교사로 양호교사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로 학생들의 보건교육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양호교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1996년부터 교육부 학교정책실에서 기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초·중·고 체육, 과학교과서에 약물관련 단원을 신설하여 약물의 올바른 사용법과 위험성에 관한 교육내용을 싣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대한주류공업협회, 1998) 일부 교과서에 단편적인 교과내용으로만 게재되어 훑고 지나가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수록된 교재보급과 함께 양호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규적인 보건교육시간의 할애가 고려되어야 할 실정임을 생각하게 한다. 한편 결혼상태에 따라 미혼인 경우 학부모(13.3%)나 기타 전문인(11.1%)이 좋겠다는 의견이 기혼 교사들보다 높아 결혼상태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의 STARS(Start Taking Alcohol Risks Seriously)for families 프로그램(1997)은 양호교사가 가족을 참여시켜 청소년의 음주 사용을 줄이고 음주시작을 늦추며 음주관련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을 연구하여 우리실정에 적용시켜 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수업방식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토론이나 실험을 추천하였고 매체로는 56.0%가 비디오가 효과적임을 들었다. 비디오 다음으로는 만화나 컴퓨터게임을 추천하였는데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미혼자가 컴퓨터 게임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또 기혼의 경우 만화를 추천하였다. 이는 교사들 스스로 얼마나 많이 그 매체를 접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적절한 교육매체 개발 및 제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육부내 교육정보화국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TV 및 라디오를 통한 홍보사업(대한주류공업협회, 1998)에 이러한 결과가 고려되어 매체개발에 대한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매체이용과 함께 다른 아동들의 견해를 경청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도전함으로써, 또 어떤 개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논리성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배우게 되는 토론이나 실험을 통한 수업방식은 그 효과성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Smith & Cowie, 1992).

음주예방 교육을 할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으로는 성장발달의 장애와 질병유발, 타인에 대한 피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토론과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건강신념 모델 및 자기확신이론을 응용한 교육 내용(Ellickson 등, 1993), 즉 음주권유를 거절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금주의 인지된 효과, 바람직한 행동의 모델링, 바람직한 행동의 칭찬 등의 포함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대상 교사의 84.4%가 여자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의 11.1%가 술을 즐겨 마신다고 답한 것은 낮은 비율이 아니다. 또한, 대상자의 36.7%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는데, 물론 모두 음주와 관련된 질환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하여 교사들 스스로도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형성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본 연구는 초등학교생들의 음주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음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결 론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주예방교육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초등학교생들에게 바람직한 음주예방 보건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1999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18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은 84.6%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종교를 가진 교사가 비종교인 교사보다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주예방교육의 시작시기는 35.0%의 교사가 6학년 때를, 28.3%가 4-5학년 때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음주예방교육의 시간은 41.0%의 교사가 체육시간을, 28.8%가 특별시간을 적합하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수업방식으로는 47.7%의 교사가 토론방식을, 35.4%가 실험방식을 추천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교육내용으로는 성장발달장애와 질병 유발을 각각 39.6%와 31.3%의 교사가 선정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매체로는 비디오를 56.0%, 만화를 21.5%, 컴퓨터 게임을 19.5%의 교사가 추천하였다. 교육 담당자로 63.7%의 교사가 양호교사를 적격자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음주예방 보건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일반 수업 시간이 아닌 체육이나 특별시간에 양호교사가 음주로 인한 성장발달장애나 질병유발 내용으로 구성된 한 비디오를 보여준 후 토론이나 실험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경빈 (1990). 유흥업소 주변의 습관중독성 물질 오남용 실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아, 이상일, 서성제 (1995). 청소년기의 물질남용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4, 534-543.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대책연구.
 윤해미 (1998). 청소년 음주실태와 예방프로그램,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문제예방세미나. 대한주류공업협회/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차경수, 김경빈, 김성이 (1993).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대책연구. 한국청소년학회, 문화체육부.
 최은진 (1999). 청소년 금주 프로그램의 실제. 제 24회 보건학 종합학술대회. 대한보건협회, 9-17.
 홍성도, 김승태 (1996). 청소년약물남용. 대한의사협회지, 39(12), 1496-1500.
 대한주류공업협회 (1998). 알코올상식백과, 서울: 광고산방.
 Black, J. (1994). Alcohol and Young Adolescents. Lancaster University. unpublished study. Education & Behavior, 24(2), 135-136.
 Ellickson et al. (1993). Preventing adolescent drug use: long term results of a junior high progra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3(6), 856-861.
 Haydock, Avril RMN (1998). Alcohol education in primary schools. Nursing Standards, 13(6), 43-46.
 Health Education Authority (1997). Health Update: alcohol. London, HEA.
 Practice Notes : STARS(Start Taking Alcohol Risks Seriously) for families(1997).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2), 135-136.
 Smith, P. K., & Cowie, H. (1992). Understanding children's development. Second ed., Oxford: Blackwell.

ABSTRACT

Direction in Health Education of Drinking Preven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ung-Soon Moon · Soo Yang · Ho-Ran Park · Eun-Sook, Lee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order to provide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health education on preventing drink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nderstanding the views hel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529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were responded by constructed questionnaires during the period of Nov. 15 to Dec. 18 1999.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were as follows:

1. 84.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schools should offer education programs on preventing drinking, and this view was more strongly shared by teachers with religions than non-religious ones.
2. 35.0% of teachers responded that the education should start with 6th graders, while 28.3% opted for 4th to 5th grades.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 class in providing such education, 41.0% selected physical education (PE), followed by extracurricular activity class with 35.4%. 45.6% of the respondents said discussion would be the most effective education method, while 35.4% recommended using experiments. Growth and developmental defect and fall in diseases were pointed out as the most interesting topic for students by 39.4% and 31.2% of the surveyed, respectively. As for the most effective media for education, 56.0% recommended video, followed by cartoons (21.5%) and computer games (19.5%). 63.7% of the teachers picked school nurses as the most appropriate person in carrying out the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finding show that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provide health education on preventing drinking to senior elementary schoolers during the PE or extracurricular activity class by school nurses. The program would be structured to first show video clips on growth and developmental defect or fall in diseases resulting from drinking and to have discussions or experiments on related matters.